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발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10.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 ② ‘-ㄴ가’를 반복하고 있다.
- ③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④ 경어체의 어조가 나타나고 있다.

11. 윗글을 읽고 **울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
- ② 슬프고 한이 서린 마음
- ③ 놀랍고 대견스러운 마음
- ④ 가슴 뿌듯하고 기쁜 마음

12.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있군.
- ②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군.
- ③ 인물 간의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군.
- ④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군.

1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극을 준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장인물은 어머니, 아들, 딸로 한다.
- ② 시간적 배경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로 설정한다.
- ③ 공간적 배경은 공원, 큰 마루, 저수지를 설정한다.
- ④ 무대 소품으로는 좌판, 생선, 용기 등을 준비한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 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 버렸다. 허비적거릴수록 몸을 건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펌크나 흘렀었다. 옷째 꼴짝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윈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버지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력저력 살아 갈 수 있겠죠.”
[A]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듯하다. 물을 다 건넌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진중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 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던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좃곳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 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쟈 탄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 ②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대화에 사회 풍자가 나타난다.
- ④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말해주고 있다.

1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이는 아버지의 성을 모르는군.
- ② 동이는 물에 빠진 허 생원을 외면했군.
- ③ 허 생원은 나귀 생각에 실족했다고 말했다.
- ④ 조 선달은 허 생원을 바라보며 웃음이 터졌군.

16. [A]를 시나리오로 옮길 때, ㉠에 들어갈 지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 72
동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웃으며)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허 생원: (자신을 업은 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동이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다.)
 물을 다 건넌 허 생원과 동이.
 허 생원은 동이의 등에서 내려온다.
허 생원: (㉠) 고맙네. 자네 동이 참 따뜻했네.

- ① 동이를 향해 돌맹이를 던지며
- ② 차가운 표정으로 동이를 노려보며
- ③ 화가 난 듯이 나귀 등짝을 때리며
- ④ 좀 더 업히고 싶은 표정을 지으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 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 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않았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밝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오?”
 호승이 웃어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 춘몽을 깨게 하리오?”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녀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 위에 끼이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되어서야 소리 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느뇨?”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 지라. 정히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A]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며,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 이로다.’

* 풍도(豐都): 지옥.
 * 환도(還道): 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을 ‘육도(六道)’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다시 태어남.
 * 출장입상(出將入相):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 공명신퇴(功名身退): 공명을 이루고 물러남.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17. 윗글의 내용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장원 급제한 일
- ② 토번을 정벌한 일
- ③ 여덟 낭자와 함께 산 일
- ④ 연화 도량의 행자로 지낸 일

18. [A]에 나타난 고전 소설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을 의인화한다.
- ② 장면의 전환이 없다.
- ③ 갈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 ④ 비현실적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19. 다음의 ㉠에 주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에서 ‘성진’은 세속적인 부귀공명을 누리는 삶에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소유’로 태어나 세속적인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서 꿈은 세속적인 가치가 헛되다는 ㉠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꿈에서 깬 ‘성진’은 ‘육관대사’의 가르침으로 불도를 깨닫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 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한다.
- ② 부귀공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 ③ 지조와 절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 ④ 형제간 우애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한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문 기사는 표제, 기사 내용, 사진을 '3원색'으로 삼아 현실을 그려 내는 그림이다. 그러나 신문 기사가 그림인 까닭은 단순히 지면의 미적 구성이라는 좁은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그림이 단순한 현실 복사가 아니듯 신문 기사라는 그림 또한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 신문 기사는 수많은 삶의 현실 가운데 어느 것을 기사화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인쇄된다. 따라서 신문 기사는 모두 객관적이라는 **고정관념**부터 깰 필요가 있다. 기삿거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가치 판단을 의미하며, 가치 판단에는 어쩔 수 없이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신문에 실린 기사는 최소한 취재 기자, 취재부장, 편집 기자, 편집부장, 편집국장이라는 다섯 사람의 눈과 손을 거쳐 '선택 받은 사건'들이다. 이러한 공동 작업 과정을 통해 인쇄되기에, 독자가 받아 보는 신문의 각 기사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 각각 그들의 시각과 보도 관행, 심지어 현실을 인식하는 관점이 녹아들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실주의적 미술 작품이라 해도 그림에 화가의 관점이나 숨결이 담겨 현실과 꼭 같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신문 읽기를 넘어 신문 편집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순서에 따라 자신의 여정을 기록했다.
- ② 중심 소재를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 ③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방법을 설명했다.
- ④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결과를 제시했다.

21. 윗글의 **고정관념**을 깬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 ① 신문 기사의 가치중립성을 신뢰하는 사람
- ②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사람
- ③ 신문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실만 신뢰하는 사람
- ④ 신문 기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22. 윗글을 참고하며 다음 기사를 읽었을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춤, 자존감 향상에 효과 탁월
 긍정적 경험 제공해 자립심에도 도움

건강 관리 연구진이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춤 수업을 받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다. 춤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덕분에 자립심도 커졌다고 말했다.

- ① 표제는 현실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겠군.
- ② 부제는 취재 기자 한 명의 손만 거쳤겠군.
- ③ 이 기삿거리의 선택도 가치 판단의 결과이겠군.
- ④ 이 내용이 기사화 될 때 편집자의 의도는 배제되었겠군.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몇 년 전 미국의 주간지 『타임』에서는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스티키봇(Stickybot)'을 선정했다. 이 로봇 기술의 핵심은 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잘 ㉠ 붙어 떨어지지 않지만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기면 쉽게 떨어지는 방향성 접착성 화합물의 구조를 가진 미세한 섬유 조직으로, 도마뱀의 발바닥에서 ㉡ 착안한 것이다.

스티키봇처럼 살아 있는 생물의 행동이나 구조를 모방하거나 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등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는 학문을 생체 모방 공학(biomimetics)이라고 한다. 이는 '생체(bio)'와 '모방(mimetics)'이란 단어의 합성어이다.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생체 모방 공학은 자연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방이다.

칼과 화살촉 같은 사냥 도구가 육식 동물의 날카로운 발톱을 모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생체 모방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 하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인간의 모방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해 왔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철조망이 장미의 가시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 하는 의문을 가져 보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 다른 생명체를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티키봇의 핵심 기술
- ② 생체 모방 공학의 개념
- ③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차이
- ④ 도마뱀의 발바닥을 모방한 로봇

24. ㉤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다리는 의자의 다리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 ② 갑옷은 갑각류의 딱딱한 외피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 ③ 배의 모터는 자동차의 튼튼한 엔진을 모방한 것은 아닐까?
- ④ 아파트의 거실은 한옥의 넓은 마루를 모방한 것은 아닐까?

25. 윗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잘못된 표기이므로 '붙혀'로 수정한다.
- ② ㉡은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착각'으로 수정한다.
- ③ ㉢은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해도'로 수정한다.
- ④ ㉣은 이어질 내용을 고려하여 '그렇지만'으로 수정한다.